



김문근 군수, 자원순환시설세 건의

김문근 군수는 지난달 27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만나 시멘트 생산 지역 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를 위해 도지사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사진>.

김진태 도지사는 “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며 “법제화를 위해 성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원순환시설세는 현행법상 자원순환시설로 분류되는 시멘트 소성로에 반입되는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의미다.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부연료로 사용되는 폐기물에 세금을 물려 시멘트 공장 지역 주변 환경 개선에 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강원 강릉시와 동해시·삼척시·영월군, 충북 제천시·단양군 등 6개 자치단체가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를 구성해 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협의회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토론회를 개최하고 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단양 군민 찾아가는 생활불편처리반

단양군은 지난달 28일 ‘생활불편처리반’을 창단식을 하고 주민숙으로 들어갔다.

지난달 30일 군에 따르면 군민 생활 깊숙한 곳까지 찾아가는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생활불편처리반’을 창단했다고 밝혔다.

생활불편처리반은 전화 한 통이면 달려가 주택의 형광등, 콘센트, 세면대 수전, 방충망 교체 등 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해결해 주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다.

이 사업은 전기·수도 등 전문 설비 기술자 2개반 4명으로 구성돼 ‘멀리 있는 자식보다 가까이 있는 생활불편처리반이 낫다’를 모토로 활동한다.

서비스 대상사는 단양군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으로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등록 장애인 ▲ 고령층 가정 ▲ 한부모 가족 ▲ 조손가정이다.

주택 내 전기·수도 등 소규모 수리와 정비를 대상으로 하며 재료비 1회당 5만원 이내(연 20만원 제한) 무상 수리를 지원한다.

주거지는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한하며 관리주체가 있는 다가구 주택, 영업용 시설, 기관·단체, 종교단체, 공공시설 등은 제외된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독서 피서지 왔어요

제천시새마을회가 휴가철 새마을 피서지 이동문고 운영에 들어갔다. 새마을문고 제천시지부는 지난 27일 하계휴가철을 맞아 지역 내를 찾은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새마을개소식’을 의림지에서 개최했다.

제천시 제공

아프면 쉬세요, 소득 공백 없게 할게요

충북 충주시는 보건복지부의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에 선정돼 7월부터 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취업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 공백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지원금액은 한 사람당 1일 4만 7천 560원(2024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으로 최대 150일간 지원된다.

대기기간이 7일 존재해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취업자 또는 지역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과 자영업자 등으로 신청자는 취업 자격과 소득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충주시, 7월부터 상병수당 시행 업무 외 부상 등 당했을 때 적용 참여의료기관 진단서만 인정

취업 자격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이며,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평균 매출 206만원 이상으로 사업자등록 및 매출 증빙이 가능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희망자는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14일 이내 의무기록지와 사전 문답서, 근로 중단확인서 등을 준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충주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상병수당 참여의료기

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병·의원 방문 시 반드시 참여의료기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의료기관에는 진단서 발급비용 외에도 환자 1인당 연구지원금 5만원의 혜택이 제공된다. 상병수당은 다른 제도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어 공무원 및 교직원, 고용·산재·자동차 보험 수급자는 지원받지 못한다. 또한 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질병 목적 외 휴직자 등은 제외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충주지사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지난 26일 지역협의회 회의를 개최하며 각 기관 및 단체 위원들에게 진행 상황 공유 및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충주=김의상 기자 udr88@cctoday.co.kr



충주시청서 행복배달통 왔어요!

충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칭찬하면 행복배달통(通)이 간다’ 6월 주인공으로 교통정책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경락 주무관(행정 7급)을 선정해 지난달 27일 행복배달통을 전달했다<사진>고 밝혔다.

시 교통정책과는 택시, 시내버스로 대표되는 대중교통 업무 외에도 화물차 인허가부터 철도, 교통시설까지 충주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전반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다.

2022년 7월부터 교통정책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 주무관은 시내버스 및 통학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시내버스와 통학버스는 평소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이기 때문에 그만큼 민원접수가 많기로 유명하다.

김 주무관은 2년간 업무 담당자로서 언제나 친절하고 긍정적인 자세로 민원을 처리해 주변 동료 직원으로부터 칭찬이 자자했다.

특히 김 주무관은 그동안 충주시의 큰 고민거리였던 시내버스 노선 개편의 실무 책임자로서 2023년 4월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및 운영 효율화 운영을 시작으로 1년간 묵실히 업무를 추진해 올해 6월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완료했다.

순환노선 신설, 콜버스 도입, 노선번호 체계 통합으로 기존의 복잡한 노선체계를 개편한 것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충주=김의상 기자 udr88@cctoday.co.kr

매포청소년 문화의 집·매포중 MOU

매포청소년문화의집과 매포중학교가 지난달 27일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청소년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단양군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소년활동과 체험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7월 11일에 매포중학교에서 3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액션! 기업가정신! 진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해 첫발을 내딛는다.

유수미 관장 겸 단양군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다”며 “두 기관이 상호 협력해 청소년이 행복한 단양을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매포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 문화교실, 진로 프로그램, 청소년 축제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는 전문기관이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주마가편 자세로 건강한 단양 건설 힘쓸 것”

김 문 근 단양군수 취임 2주년

울누림센터·단양군보건의료원 개원 성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체험형 관광지 도약

김문근 군수가 민선8기 38대 단양군수로 임기를 시작한 지 취임 2년을 맞이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을 만들기 위해 주마가편의 자세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군수는 군민의 문화생활 인프라를 충족할 ‘울누림센터 개관’과 최신 의료장비·최고 의료인력을 갖춰 지역 의료서비스의 새 지평을 열게 된 ‘단양군보건의료원 개원’을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꼽고 싶다고

했다. 또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단양군 전체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받아 세계속 단양 고요브랜드를 창출하겠다”며 “이는 단양이 문화·관광·고고·생태·경관 등을 결합한 국제적 관광지로 가는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멘트 생산지역 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와 CCUS 허브-클러스터 구축으로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못골 종합개발 등 단양군의 백년대계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군수는 “단양군이 민선8기 들어 인구 감소세가 현저히 둔화되고 있다”면서 “인구 3만 회복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청년 일자리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산업단지과 주거플랫폼을 조성하는 등 인구 증

가를 위한 각종 시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또 거주인구에 체류인구를 합친 군의 생활 인구는 27만명으로 등록인구 대비 8배가 넘는다”며 생활인구는 국가 재정지원 기준에 반영되고 중앙정부의 행정·재정적 특례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만큼 군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군민과의 약속인 8개 분야 80개 공약사업의 추진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단양의 관광 패러다임을 혁신하고 내륙관광 1번지 단양을 향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루섬 권역 종합관광지 개발과 리조트 조성 등 민간투자사업으로 체험형 관광지로서의 새 지평을 열겠다”고 말했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홍성지사

문의전화 1577-7770